목장 교재 2018년 9월 9일(주일)

"인생의 불황타개법"

요한복음 5:1-9

이 병자는 무려 38년동안이나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불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불황을 헤쳐나갈 힘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긴 투병으로 인해 가족들은 모두 떠났을 것이고, 이웃들에게도 소외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네!' 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38년동안 그를 묶고 있던 인생의 불황을 한 순간에 타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예배가 회복되면 불황도 회복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요 5:2-3)

이 38년된 병자가 지니고 있던 병을 치유하게 된 것은, 그가 양문 곁 베데스다 못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장소에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축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수축하고 회복하는 모든 출발점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양문의 수축, 즉 올바른 예배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A.W. 토저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하루를 살고, 예배하기 위해 일주일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불황을 타개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에서 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세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져라.
2.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라.
3.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하라.

이 세가지를 종합하면 한마디로 '도전정신을 가지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즉,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자포자기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 들어갈 때, 잘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은 언제나 뒤쳐졌기에 평생 자신이 나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며 불평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불평의 마음을 품고 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소망'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불황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와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병자의 불평을 들어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 5:7)

사람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놓으십니다. 그렇기에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적극적이고 긍

정적인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다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불황은 끝이 난다.

우리 교회 현수막 중에,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나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불황은 끝이 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정체성도, 자화상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해결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종류의 불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황, 자녀나 부부간의 불황,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불황..

이 모든 인생의 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38 년된 병자, 그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았던, 스스로도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를 뒤덮고 있던 모든 불황의 그림자를 단번에 걷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황(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고, 그 불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세가지 교훈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부분이 있다면, 혹은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나에게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